

# KRX300, 인덱스펀드 출시 잇따라… 선물·ETF도 곧 상장

코스피·코스닥시장 우량종목 구성  
벤치마크 수요 증가… 상승세 전망

정부정책의 수혜 지수로 꼽히는 'KRX 300'이 자본시장 '백조'로 떠올랐다. 금융 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이 앞다퉈 관련 상품 출시에 나서고 있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 가도 해당 지수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원활한 수급이 기대된다.

KRX300은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탄생한 지수로 코스피(238종목)와 코스닥(67종목) 시장의 우량종목으로 구성됐다.

금융당국은 KRX300지수가 코스피에 집중된 자금을 코스닥으로 분산 유도하면서 균형 잡힌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시된 KRX300 관련상품>

출시일	운용사	상품명
2월 8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스마트KRX300인덱스펀드
2월 19일	하나UBS자산운용	하나UBSKRX300인덱스증권투자신탁
2월 19일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KRX300인덱스증권투자신탁
2월 21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KRX300인덱스증권투자신탁
2월 21일	삼성자산운용	삼성KRX300인덱스증권투자신탁
2월 22일	DB자산운용	DBKRX300인덱스증권투자신탁
2월 26일	DGB자산운용	DGB명품KRX300인덱스증권투자신탁

/자료=각사

아울러 지난 달 기획재정부가 "위탁운용 유형에 KRX300 벤치마크 지수를 적용하면 기금운용평가 가점을 줄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과 공제회 등이 벤치마크 지수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자산운용사들은 잇따라 KRX300 지수를 활용한 인덱스펀드를 출시하고 있다. 지수가 탄생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총 7개의 KRX300 인덱스 펀드가 탄생했다.

지난 8일 업계에서는 가장 먼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신한BNPSS마트 KRX300인덱스펀드'를 선보였고 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을 비롯해 하나UBS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DB자산운용, DGB자산운용이 KRX300 추종 인덱스펀드를 출시했다. 다음주에는 키움자산운용이 추가로 KRX300 추종 인덱스 펀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23일 KRX300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줄지어 등장할 전망이다.

한편 이달 들어 KRX300은 코스피지수와 코스피200지수 대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상장 첫 날인 지난 5일부터 지난 1일까지 KRX300은 2.23% 하락한 반면 코스피200지수는 3.23% 떨어지면서 하락장에서 견조한 성과를 기록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국내주식형펀드 수익률, 지지부진 속 '제자리'

### 주간펀드 동향

#### 소형주 하락폭 제일 크게 나타나

파월 연준(Fed) 의장의 매파적(통화긴 죽) 발언이 국내외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주식형펀드 수익률은 보합세를 기록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주(2월 23일~28일)간 코스피지수는 미국 금리인상 우려감에 직전주 대비 0.99% 하락한 2089.98포인트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한 결과에서는 모든 유형에서 부진한 성과를 보인 가운데 소형주(-1.95%)의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금융정보업체 애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해당 기간 국내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보합세를 기록했다. 이 중 액티브주식배당형 펀드가 0.35%의 수익률로 가장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다만 인덱스 펀드로 지금유

입이 지속되며 순자산은 직전주 대비 1680억원 늘었다.

해외주식형 펀드 역시 0.39% 오르는 데 그치며 지지부진한 흐름을 기록했다. 해외주식형을 지역별로 분류한 결과에서는 베트남(3.56%)과 브라질(1.69%)이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보였지만 중국 펀드가 동일기간 -0.87%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순자산은 2500억원 증가했다.

지난 한 주간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펀드는 액티브주식테마 유형인 '현대현대그룹플러스증권투자신탁 1[주식]종류CS'로 나타났다. 현대차, 기아차 등 현대차그룹 종목이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해당 기간 1.7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외주식형 펀드 중에서는 신흥아시아주식으로 분류되는 '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신탁 1(H-U.S.D.) (주식 - 파생형) 종류 A - e' (3.89%)가 높은 성과를 시현했다.

/손엄지 기자

## 위성기반 M2M 급성장… '독보적 기술' 주목

〈기계간〉

### 株라큘라의 종목

#### AP위성

지상·위성망 사용 칩셋·모듈 개발  
다양한 활용 가능… 시장선점 기대

"최근 위성 기반의 M2M(기계간)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AP위성이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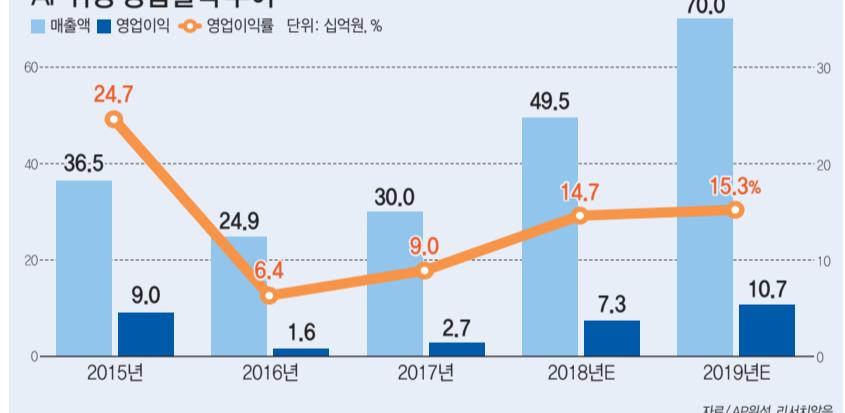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연구원은 4일 위성 기반의 M2M 시장이 최근 5세대(5G) 통신, 블록체인 기술과 융합되면서 급성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M2M이란 사물을 통신으로 연결해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술로, 자율주행차량이나 트럭 및 트레일러의 추적 관리, 선박의 자동식별장치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그리드, 긴급 구조, 환경 감시, 스마트시티 인프라 관리, 스마트 농업, 자활 모니터링 등 전 사회 분야로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최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위성통신 기술을 활용해 지상망과 위성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M2M 칩셋과 모듈을 독자 개발했다"면서 "AP 위성이 상용화한 지상망과 위성망 겸용

#### AP위성 영업실적 추이



M2M 모듈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해 시장선점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미루시스템즈와 61억원 규모의 M2M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한국전력의 스마트그리드 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AP위성은 5G를 활용한 M2M 칩셋 상용화 기술까지 확보하고 있어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실적도 기대된다.

최 연구원은 "AP위성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39억원으로,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어닝서프라이즈(깜짝실적)를 나타냈다"며 "이같은 기조가 올 상반기까지 이어지며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말 기준 수주잔고가 이미 500억원을 넘어선 데다 지난 2월 체결한 '튜라야(Thuraya)로의 위성휴대폰 납품 계약'으로 600억원에 육박한 수주잔고를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도 불구하고 임박한 군 정찰위성 사업과 전자광학 및 적외선장비 탑재 위성 사업에 참여하면서 올해 상반기 수주잔고는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P위성의 지난해 매출액이 3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고성장을 담보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리서치알음은 AP위성에 대해 긍정적인 투자의견과 함께 적정주가 1만2700원을 제시했다. 기존의 적정주가 1만1000원에서 15.5% 상향 조정한 수준으로, 현재 주가 대비 44.3% 가량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손엄지 기자

## 베트남·싱가포르 방문… 수주 지원 등 협력 강화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대형 인프라 사업·국토교통 정책 논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베트남과 싱가포르를 방문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장관이 5~8일 베트남과 싱가포르를 방문해 우리 기업의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주거복지 등 국토교통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건설 기업들의 수주가 몰려 있는 핵심 전략 국가로 꼽힌다.

김 장관은 이들 국가 고위 인사들과의 협력회의를 통해 공항·철도·도로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의 수주 지원은 물론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및 첨단교통 등 다양한 국토교통 정책 협력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베트남에서는 건설부와 교통부, 자원환경부 장관과 릴레이 협력회의도 열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건설·도시개발, 교통·인프라 분야 정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교통 분야 관료 사관학교인 베트남 교통통신대학교에 '한-베 첨단교통인프라 협력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한-아세안 정상 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신남방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협력 파트너로서 베트남과 고위급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는 국가개발부, 스마트네이션·디지털정부청, 육상교통청 등과 고위급 협력회의를 연다.

/이규성 기자 peace@

## 현대산업개발 "부동산114로 종합부동산 인프라기업 도약"

### 빅데이터 활용 '프롭테크' 사업 추진

현대산업개발이 올해 초 인수한 '부동산114'를 통해 종합부동산 인프라 회사를 꿈꾸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4일 "부동산114의 웹사이트에는 하루 평균 12만명의 네이티즌이 방문하고, 검색 키워드 등으로 하루에 30만 건이 넘는 빅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다"며 "부동산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밝

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말 부동산114 대표이사 전무에 이성용 호텔아이파크 대표이사(전무)를 선임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 부동산114가 수집한 지역특화 정보를 지주와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추진중인 생활밀착형 유통 플랫폼 'NSC(Neighborhood Shopping Center)' 사업과 연계해 소형 개발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프롭테크란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채널과 빅데이터 분석, VR(가상현실) 등 하이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서비스를 말한다.

/이규성 기자

부동산114는 현재 전국 6500여개 중개 업소 네트워크를 통해 아파트, 주택 매물 정보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 부동산114 포털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프롭테크(Prop-Tech)' 사업에도 진출할 방침이다.

프롭테크란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채널과 빅데이터 분석, VR(가상현실) 등 하이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서비스를 말한다.